

IOC 공식발표…도쿄올림픽, 내년 7월23일 개막한다



2020 도쿄올림픽이 내년 7월23일 개막한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지난 30일(이하 한국시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가 결정된 도쿄올림픽의 일정을 확정해 발표했다.

도쿄올림픽 내년 7월23일 개막 해 8월8일 폐막한다. 이는 당초 올

해 예정돼 있던 일정(7월24일 개막, 8월9일 폐막)에서 하루 앞당겨진 것이다. 도쿄파럴림픽은 8월24일 개막, 9월5일 폐막하는 일정이다.

금요일에 개막해 일요일에 폐막하는 통상적인 올림픽 개최 일정에 맞췄다. 내년 7월23일은 금요일, 8월8일은 일요일이다.

도쿄올림픽 내년 7월23일

개막 결정 3가지 이유는?

선수 선발·여름방학·코로나19 종식 “종전기념일 피해”

2020 도쿄올림픽이 내년 7월23일 열린다. 그 배경에는 선수 선발, 여름방학,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종식 등 크게 3가지가 자리잡고 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지난 30일(이하 한국시간)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가 결정된 도쿄올림픽의 일정을 확정해 발표했다. 7월 23일 개막, 8월8일 폐막으로 당초 올해 예정돼 있던 일정(7월24일 개막, 8월9일 폐막)에서 하루씩 앞당겨졌다.

이날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이사회를 개최해 새로운 대회 일정에 대해 논의한 뒤 모리 요시로 조직위원장이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과 전화회담을 진행, 합의를 이끌어냈다. 곧이어 IOC가 임시 집행위원회를 개최, 합의안을 승인했다.

새로운 일정이 확정된 뒤 모리 위원장은 무토 도시로 조직위원회 사무총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했다. 이 자리에서 새로운 일정이 확정된 구체적인 배경이 확인됐다.

무토 사무총장은 “7월16일에 개막하면 6~7월에 있는 도의원 선거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7월30일에 개막하면 8월15일 종전기념일에 폐막식을 해야 한다”며 “종전 기념일은 국가에 있어 사회적 의미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피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마요르카 기성용 “축구보다 안전이 우선”

입단 후 한 경기 만에 리그중단…현재 자택서 개인훈련 중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레알
마요르카
에서 뛰고
있는 기성
용(31)이
안전의 중
요성을 강
조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증(코로나19)이 급속하게 확산 되는 스페인의 상황을 우려했다.

마요르카는 지난 31일(한국시간) 흠파이지를 통해 기성용과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지난 2월 마요르카에 전격 입단한 기성용은 3월 7일 에이바르와 정규리그 27라운드를 통해 데뷔전을 치렀으나 코로나19로 리그가 중단되면서 도전

외 티켓 구매자에게 있어 바람직 스코로나19의 영향(종식까지 여유)을 고려하면 1년을 연기해 여름 개최가 바람직 등이다.

여름 개최 시 무더위와 태풍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무토 사무총장이 “올림픽이 올해 열렸어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상정해 결정했다”고 답변했다.

당초 4~5월에 열리는 ‘벚꽃 올림픽’ 가능성도 부상했으나 조직위원회는 여름으로 최대한 준비 기간을 늘리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다. 특히 ‘여름방학’ 기간에 맞추는 것이 티켓 구매자들의 환불을 줄일 수 있고 자원봉사자들을 소집하기 유리하다는 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날짜는 지금까지 판례였던 ‘금요일 개막-일요일 폐막’ 원칙을 따랐다. 그중에서도 7월23일을 개막일로 잡은 것은 한국의 광복절인 ‘종전기념일’을 피하기 위해서다.

무토 사무총장은 “7월16일에 개막하면 6~7월에 있는 도의원 선거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7월30일에 개막하면 8월15일 종전기념일에 폐막식을 해야 한다”며 “종전 기념일은 국가에 있어 사회적 의미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피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금요일 개막-일요일 폐막 통상 일정 맞춰

수영·육상 세계선수권 등 일정 조율 필요

이날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도쿄도 내에서 이사회를 개최해 새로운 대회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모리 요시로 조직위원장이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과 전화회담을 진행해 도쿄올림픽의 새로운 일정에 합의했다. IOC가 임시 이사회를 개최해 합의안을 승인하면서 내년 7월23일 개막이 최종 확정됐다.

바흐 위원장은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와 일본 정부 및 모든 관계자들이 전례없는 도전을 완수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인류는 현재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 도쿄올림픽을 통해 터널 밖 빛을 만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모리 위원장은 “바흐 위원장과 전화회담에 하시모토 세이코 올림픽 장관,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가 함께했다”며 “우리의 제안을 IOC가 받아들였다. 대회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며, 여름방학 기간에 걸쳐 대회를 여는 것이 여러모로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도쿄올림픽은 기준 일정이 크게 달라지지 않아 연기에 따른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성화 봉송, 수송 등 대회 일정의 포맷을 거의 그대로 재활용할 수 있게 됐으며 여름방학 기간 중이라 자원봉사자들의 재소집도 용이하다.

교도통신은 “거의 달라지지 않

은 시기에 올림픽을 열게 돼 기존 계획을 활용할 계획이다. 코로나19 가 종식되기까지 시간을 최대한 확보,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고 평가했다.

고이케 도지사는 “코로나19의 세계적 현황을 고려할 때 선수와 관중의 안전을 위해서는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며 “종전 대회 날짜와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준비가 순조로울 것이라 생각한다. 도쿄도는 모든 힘을 쏟아 조직위원회와 성공 개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에 열리는 대형 스포츠 이벤트들과 일정 조율이 항후 과제다. 일단 도쿄올림픽과 마찬가지로 1년을 연기한 유럽축구선수권대회(6월11일~7월11일·유럽 11개국), 코파아메리카(6월11일~7월11일·아르헨티나, 콜롬비아)의 개최 시기는 확정됐다.

일정이 겹치는 대회는 세계수영

선수권(7월16일~8월1일·일본 후쿠오카), 그리고 세계육상선수권(8월6일~15일·미국 오리건)이다. 그러나 수영선수권은 일본에서 열리는 대회라 일정 변경이 어렵지 않을 전망. 육상선수권 역시 세계 육상연맹이 직접 나서 기간을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대회 연기 결정부터 새로운 일정 확정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IOC는 지난 24일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인해 도쿄올림픽 일정을 2021년 여름까지 조정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올림픽이 연기되는 것은 1894년 제1회 대회가 아테네 그리스에서 열린 이후 124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연기 결정 후 엿새가 지난 2021년 열리는 대회의 일정이 확정됐다.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많이 남아 있지만 기본 틀을 정했다는 점에서 항후 대회 준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혜진, 개인5번째 정규리그 MVP…위성우 감독, 7번째 지도상

2019-20 여자프로농구 각 부문 수상자 발표

박혜진(우리은행)이 개인 5번째 정규리그 MVP를 수상했다. 위성우 감독(우리은행)도 개인 7번째 지도상을 받았다.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이 지난 31일 ‘하나원큐 2019-20 여자프로농구’의 정규리그 각 부문 수상자를 발표했다. 정규리그 1위를 차지한 우리은행에서 MVP가 탄생했다.

WKBL은 지난 20일 제5차 이사회를 통해 지난 9일 경기까지의 기록과 순위를 인정하며 시즌을 조기에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그 결과 우리은행(21승6패)이 KB(20승8패)를 1.5경기 차로 따돌리고 1위를 차지했다.

각종 수상자는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기자단 투표를 통해 선정됐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정규리그 MVP는 박혜진에게 돌아갔다. 박혜진은 108표 중 99표를 얻은 압도적인 득표로 영예에

를 안았다. 박혜진이 MVP에 오른 것은 2013-14시즌, 2014-15시즌, 2016-17시즌, 2017-18시즌에 이어 개인 5번째다. 박혜진은 MVP, 베스트5 등으로 받은 상금 전액(100만원)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곳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포지션 별 최고의 선수를 선정하는 ‘베스트5’로는 박혜진을 필두로 안해지(BNK), 강이슬(하나은행), 쏜튼(KB), 박지수(KB)가 뽑혔다. 박혜진은 가드 부문 108표 중 108표를 획득, 베스트5 중 유일하게 만장일치로 선정됐다.

우리은행의 위성우 감독은 역대 최다인 7번째 지도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즌 정규리그 역대 최다승(19승)을 경신하고 이 부문 최다기록(21승)을 기록 중인



위성우 감독은 WKBL로부터 특별상도 받았다.

스타 신인선수상은 출전 경기 수 규정에 따라 단일후보로 오른 허예은(KB)이 차지했다. 2019-20 WKBL 신입선수 선발회 1라운드 1순위로 KB에 입단한 허예은은 기자단 투표 108표 중 찬성표 96표를 획득해 생애 단 한 번뿐인 신인상을 수상했다.

WKBL 평가단이 선정하는 포카리스웨트 MIP(기량발전상)은 우리은행 김소니아에게 돌아갔다.

(약 131억원)에 도장을 찍었다. 비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메이저리그 시범경기가 취소되고 개막전이 미뤄졌지만 김광현은 강한 인상을 남기기에 충분한 성적을 냈다.

김광현은 2020 메이저리그 시범경기 4개임에 출전, 8이닝 무실점 11탈삼진으로 호투했다. 김광현은 팀 내 5선발 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다. 현재 미국 플로리다 캠프에 남아 훈련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열리지 않은 월드컵 결승전 상금은 4월1일 오후 2시 희망브리지 재해구호협회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김광현, 스프링캠프서 눈에 띄는 활약…주목되는 신인”



김광현은 32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에서 주목되는 신인으로 뽑았다.

메이저리그 이적 소식 등을 다루는 ‘MLB트레이드루미스’는 저

난 31일(한국시간) ‘내셔널리그 중부지구의 루키 레이더’를 통해 중부지구 팀 별로 2020시즌 활약이 기대되는 신인을 조명했다.

매체는 김광현을 세인트루이스의 주목되는 신인으로 뽑았다. MLB트레이드루미스는 “좌완 김광현과 제네시스 카브레라는 카디널스에서 선발과 불펜이 모두 가능 한 옵션”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김광현에 대해선 “KBO리그에서 오랫동안 좋은 모습을 보였던 투수”라며 “스프링캠프에서 눈에 띄는 활약을 했다”고 설명했다.

김광현은 지난해 12월 세인트루이스와 FA로 2년 800만달러(약 95억원), 옵션 포함 최대 1100만달러

메시 “선수들 급여 70% 삭감 OK…직원들은 100% 받기를”

리오넬 메시의 소속팀인 스페인 프로축구 FC바르셀로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발생한 위기 극복을 위해 급여 70% 삭감을 결정했다.

바르셀로나는 지난 31일(한국시간) 성명서를 통해 “바르셀로나 스

포츠팀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선수단 급여 70% 삭감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는 메시가 자신의 SNS를 통해 “우리 선수단과 코칭스태프는 급여를 70% 삭감하는 데 동의했다. 이 결정으로 나머지 직원들

이 급여를 100%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테어 슈테켄, 세르히오 부스케츠 등 다른 바르셀로나 소속 선수들도 SNS에 급여 삭감 결정 소식을 전했다.

유럽 전역에 코로나19가 확산되며 스페인 리그가 역시 무기한

중단된 상태. 이에 구단별 재정 손실이 늘어났고 결국 선수단의 급여 삭감까지 이뤄졌다. 일단 이번 조치로 바르셀로나 구단은 재정 측면에서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다만 최근 구단의 급여 삭감 제안에 선수단이 반대했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오는 등 과정이 매끄럽지 않은 않았다.

메시 역시 SNS에 “구단이 우리